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7월 16일 월요일 (음 6월 4일) 제208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학생 시범단의 멋진 발차기...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막



지난 14일 무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열린 제12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회식에서 무주군 학생 태권도 시범단이 격파를 선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9면>

방류 목적 갯계 인공증식 성공

김형섭 군산대 교수, 세계 최초로 어린 개체 확보
산란 유도·부화 등 거쳐 전 생활사 과정 완성

군산대학교 김형섭 교수(해양과학대학)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방류 목적 갯계 인공증식에 성공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김 교수 연구팀은 해양환경공단과의 협업으로 인공 증식에 성공한 갯계 500여 마리를 지난 11일,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월차 갯벌에 방류했다. 갯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국가의 종다양성 확보를 위해 매우



긴요한 대상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은 갯계의 개체군 복원 지역에 대한 주기적 관측, 서식 환경의 복원, 특별 보호구역 지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연구팀은 개체군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산란 유도와 부화, 부유 유생의 발생 및 성장, 수차례의 변태를 거쳐 어린 갯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활사 과정을 대학 실험실에서 완성하고, 세계 최초로 자원복원을 위한 방류 규모의 어린 갯계 개체들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군산=김정훈 기자

송영선 전 진안군수 징역 7년형

재임시절 골프장 준공 허가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 받아

재임 시절 골프장 준공 허가를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송영선(67) 전 진안군수에게 징역 7년,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3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군수에게 징역 7년,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송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5월 29일 진안군의 한 골프장 준공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송 전 군수는 지속해서 업자에게 돈을 요구했으며 골프장 준공대가로 전해진 돈은 차명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송 전 군수는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 전 군수가 무이자 무담보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2억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고 또한 이 돈을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형법 제129조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며, 여기에서 '요구'란 뇌물을 취득할 의사를 상대방에게 그 교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청구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송 전 군수가 만약 그 돈을 받지(수수)않았다 하더라도 그 '요구'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안군수로서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과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그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에서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다 준공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던 업자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 명의 계좌로 2억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죄책을 일탈하려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송효철 기자

김광수 의원 "식약처는 뒷북처인가?"

"살충제 계란·유해성 생리대 이어 발암물질 고혈압약까지 사후약방문식 대처 일관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는 만큼 국민안전 최우선으로 피해 최소화해 나서야"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은 13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와 관련해 "식약처는 뒷북처"라며 식약처의 뒷북대응을 강력 질타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수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의 약품안전처의 오락가락 행정 처리는 이번 발암물질 함유 고혈압치료제 사태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났다"며 "살충제 계란 논란부터 유해성 생리대 논란 그리고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대응 매뉴얼 부재와 앞뒤가 맞지 않는 대처로 식약처는 국민들의 혼

란과 불안을 확산시키려고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실제 식약처는 유럽의약품안전청의 발암물질 고혈압치료제 회수 발표에 따라 지난 7일 82개사 총 219개 제품 판매·제조 중지를 내렸지만, 이를 후 46개 업체 104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더욱이 식약처는 병원과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주말에 발표함으로써 약을 매일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환자들은 큰 불편과 불안감을 주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 서버 다운과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는 무책임한 발표로 인한 병·의원 업무 마비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늦게나마 발암 의심물질이 들어 있는 고혈압약에 대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국내에 있는 원료를 거둬들여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시험방법을 검증(밸리데이션)하고 있는 상태로 원료의약품의 NDMA 검출량 및 위해성 여부 검증 시기를 가능할 수 없게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칠 연장도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되풀이되는 국민안전 위협에 매번 사후약방문식 대처로만 일관하는 식약처는 '뒷북처'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정부의 미흡하고 안일한 대처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는 만큼 식약처는 국민안전 최우선으로 신속한 대처와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길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문화상 하반기 국회의원 선출

무주 2018 남대천 물축제

불중음부주! 물만남물축제!

2018. 07. 27(금) - 07. 29(일)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남대천 일원
주최·주관 무주읍·무주읍발전협의회

| 축제일정 | | 요일별 | 행사명 | 장소 |
|---------------|-------|--------|---------------|-------|
| 일시 | 시간 | | | |
| 7월 27일 금요일 | 11:00 | | 반디어린이 수중축구 대회 | 수중축구장 |
| | 16:00 | | 무주군 동아리 공연 | |
| | 18:40 | | 래시가드 패션쇼 | 메인무대 |
| | 19:00 | | EDM 파티 | |
| 20:00 | | 영화상영 | | |
| 7월 28일 토요일 | 11:00 | | 반디어린이 수중축구 대회 | 수중축구장 |
| | 16:00 | | 전국퍼포먼스댄스대회 | |
| | 18:00 | | 식전공연 | 메인무대 |
| | 19:00 | | 개막식 | |
| | 20:00 | | 축하공연 [홍진영] | |
| | 20:40 | | 불꽃놀이 | |
| 20:45 | | EDM 파티 | | |
| 7월 29일 일요일 | 16:00 | | 전국배틀댄스대회 | 메인무대 |
| | 20:00 | | 영화상영 | |